

\*어느 승려가 노파에게 대산(臺山) 가는 길을 물었다. 노파가 대답했다. "이리로 곧장 가시오." 승려가 그쪽으로 서너걸음을 때놓자 노파가 말했다. "말정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시누만." 그후 누가 이 일을 조주에게 알렸다. 조주가 말했다. "어디. 너희들을 위해 내가 가서 노파를 알아보마." 다음날 조주가 가서 꼭 같이 물었고, 노파 또한 똑같이 대답했다. 조주가 돌아와 대중들에게 말했다. "대산의 노파는 내가 다 알아보았느니라."

**한형조**  
**무문관 탐방**  
55  
**오대산 가는 길**

\*나 해개가 말한다. "노파는 앉아서 전술을 구상할 줄만 알았지 실제 적과 맞닥뜨린 것을 깨닫지 못했다. 조주 노인은 진영을 훑치고 오새를 치는 솜씨를 뛰어난 대인의 품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찬찬히 살펴볼 때 다 잘못이 있다. 그럼 어디. 말해 보라. 어디가 조주가 노파를 알아본 자리인가."



그림...이준석

\*송하야 가로되, "물음이 똑같이니 답도 또한 같을 수밖에. 밤 속에 모래가 있고, 진흙 가운데 가시가 있다."  
趙州勘婆:  
趙州因僧問, 婆子臺山路向甚處去, 婆云, 直去。僧云, 那裏是臺山路, 婆云, 好。僧云, 又恁麼去, 後有僧問, 云云, 待我去與, 婆云, 明日便去, 亦如是問, 婆如是答。州歸謂衆曰, 臺山路我與, 婆勘破了也。無門曰, 婆子只

길목에서 일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고존속어록·古尊宿語錄>이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지눌의 제자이자 고려 선종의 집대성자인 해심의 <선문열승·禪門拈頌>도 오해의 소지가 없다.

성지로 가는 길목에 한 노파가 있었다. 아마도 덕산의 노파처럼(45~48강) 좌편을 벌여놓고 떡

을 팔거나, 죽은 음식이며 속소를 제공하는 주막집의 주인이었을 수도 있다. 순례자는 묻는다. "대산으로 가는 길이 어느쪽입니까?" 노파는 손가락으로 한 길을 가리킨다. 순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러주는 대로 걸음을 옮긴다. 노파는 이를 보고는 도리어 혀를 찬다. "꽃, 멀정하게 생긴 녀석아..." 대산으로 가는 길은 진리에 이르는 길, 혹은 궁극에 이르는

길을 상징 혹은 은유하고 있다. 여기서 길이 갖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떠올려야 한다. 길(路)은 곧 길(道)이다. 노파는 길(路)을 묻는 순례자에게 길(道)을 일깨우고 있다. 바보처럼 내 손가락을 따라가지 말고 네 속의 영원의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라는 주문이다.

순례자들이 길목의 어느 노파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조주가 들었다. 조주는 노파의 실력을 알아보겠다고 서 길을 나섰다. "대산으로 가는 길이 어느쪽입니까?"

**베푸는 사랑 정명의 첫 조건**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하고 강제적인 도덕이 사라진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정명)은 종교계와 지성계에서 자주 이야기될 만큼 공동의 관심사이다.

정명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올바른 법을 가르치는 팔정도 수행의 한 단계이다. 따라서 정명은 스스로 자각하고 마음을 챙기며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이다. 또 수행자가 부처님의 도리를 깨칠 수 있는 반석이 되고, 경계의 현실적

**정명 ①**

표현이다.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정물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거짓말하고 흠치는 일을 계속 한다면, 그는 결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또 그는 오랫동안 지속했던 수행 경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집착과 망상과 같은 사된 감정에 싸여 있을 것이다.

정명은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다. 바른 마음에서 깨끗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른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처님의 전통적인 가르침에도 있고, 길서·동시대의 사회적 약속도 있다.

책·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5



미국에서 범종교계 지도자들의 세미나가 개최된 적이 있다. 세미나에는 세실 윌리엄 목사가 참석했다. 샌프란시스코 그리이드 메모리얼 교회의 흑인 목사인 그는 착박한 교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놀라운 성과를 거둔 목회자로 유명

요건은 '사랑'이다. 어느 췌는 듯이 더운 오후, 아잔차 스님은 재가 신도 집에서 설법과 축복을 베풀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열בל 열승 의식을 간단히 치른 스님은 야자잎에 물을 적서 집안과 법문을 들으러온 신도들에게 뿌려주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봉사**  
**현대를 사는 올바른 길**  
**적절한 직업 행복의 요건**

하다. 이 자리에서 세실목사는 "우리가 종교로부터 배워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유·무생물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팔정도의 정명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바른 생활이 담고 있는 한 가지 방편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정명의 첫번째

법문을 했다. 젊은 승려가 더위를 참을 수 없었다. "스님! 그늘에 앉아 법문할 것이지 이런 쓸데없는 의식을 치르시느라 햇빛에서 애를 쓰십니까?" 아잔차 스님은 "날씨가 너무나 더운 탓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시원한 샤워를 원하니 어찌겠는가"라고 속삭였다. 스님다운 사랑을 편 것이다.

이 일화에서 아잔차스님은 부처님이 가르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정명은 우리만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기 보다는 타인의 생활 속에서 깨닫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까닭이다. 이것이 정명의 두번째 요건이다.

우리의 문화권에서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묻지만 인도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들 대부분은 "어떤 신을 믿고 있어요"라고 질문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교'를 맺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만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를 통시적으로 지켜보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성장과 자각이 있다.

정명을 위해선 적절한 직업도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어느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나 보다는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직업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편도 될 수 있다. 일터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의 생활은 윤락해지고 타인에게 봉사한다는 부듯함도 얻을 수 있다. 즉 행복의 의미에는 '소비'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종과 탐닉에 근거한 소비는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안겨줄 수 없다. 그것들이 심해지면 당연히 빚을 지게되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pia.com)

**"가슴속 영원의 길을 찾아가라"**

조주가 노파를 알아본 자리 어디인가

解坐籌 帷帳, 要且着賊不知。趙州老人善用偷 營劫奪之機, 又且無大人相。檢點將來, 二俱有 過。且道那裏是趙州勘婆子處。頌曰, 問既一 般, 答亦相似。飯裏有砂, 泥中有刺。  
대산은 오대산(五臺山)을 가리킨다. 중국 산서성 동부에 있는 불교의 성지이다. 다섯 개의 봉우리가 마치 누대처럼 생겼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5세기 말 북위시대부터 문수보살(文殊菩薩)이 거하는 화엄도량(華嚴道場)으로 조성되고 발전되어 한때 150개의 가람을 자랑했다. 청량국사(淸涼國師) 정관(澄觀)이 여기서 <화엄경소>를 지었고, 불공 삼장(不空三藏)이 금각사를 지어 문수신앙을 넓히기도 했다. 그래서 이 산을 일명 청량산(淸涼山)이라고도 한다. 정대 이후에는 동고와 티벳을 회유하기 위해 라마교를 여가다 성행시키기도 했다.

우선 유의할 것이 있다. 얼핏 조주와 노파 사이의 결점이 있었던 곳이 '오대산 바로 아래에서'였던 듯한 인상을 받는다. 특히 <선림유취·禪林類聚>가 그렇다. 그러나 조주가 살던 관음선(觀音院)은 하북의 조주부에 있고, 오대산은 산서성 동부에서 멀어도 한참 먼 거리이다. '어디 한번 알아보자'고 소풍 나가듯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이다. 사건은 '오대산 아래에서'가 아니라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 물음에 노파는 예의 손가락으로 한 길을 가리켰다. 조주는 그쪽으로 걸음을 떼놓았고, 이 광경에 노파는 또 혀를 끌끌 찼다. "멀정하게 생겨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노파에게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조주는 오히려 득의만만했다. "내가 그 노파를 혼내주고 왔다"는 것이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밤 속에 모래가 있고, 진흙 가운데 가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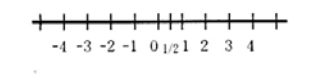
해개는 이 게임을 이렇게 평가한다. "노파는 전술을 구사하는데는 능했으나, 첩자가 소리없이 잠막 속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지 못했다." 역시 노파는 백년을 무르익은 고불(古佛)인 조주의 상대가 아니다. 그렇지만 조주도 정공법이 아닌 위계를 써서 노파의 진영을 뚫고 오새를 허물었으니 아무래도 '대인의 품모'라고는 할 수 없다. 해개는 둘 다에게 허물이 있다고 총평했다.

여기까지는 주변일 뿐이다. 화두는 크로스 워드 퍼즐이나 장막 속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지 못했다. 역시 노파는 백년을 무르익은 고불(古佛)인 조주의 상대가 아니다. 그렇지만 조주도 정공법이 아닌 위계를 써서 노파의 진영을 뚫고 오새를 허물었으니 아무래도 '대인의 품모'라고는 할 수 없다. 해개는 둘 다에게 허물이 있다고 총평했다.

**불교와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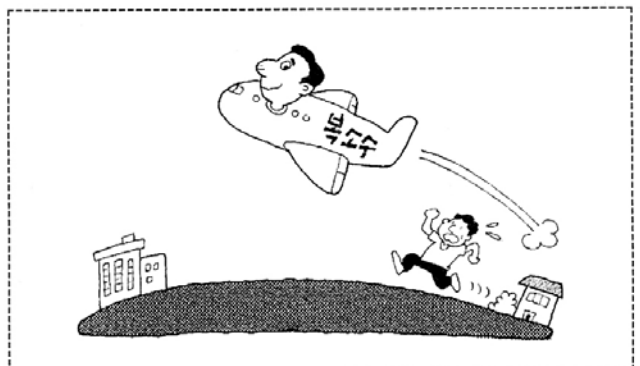
59  
**복소수와 마음**  
김용운

한국의 실존주의 시인 이상은 '인생은 일차방정식이 아니다'고 절규한다. 1차방정식  $ax+b=0(a \neq 0, a, b \text{ 는 실수})$ 의 해는 항상 실수가 나온다. 실수를 물질로 생각할 때 위의 1차방정식은 물질적인 문제에 항상 물질적인 방법으로 답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2차방정식  $x^2 = -1$ 의 해는  $x = \pm \sqrt{-1} = i$ 로 허수이며 해는 실수의 범위를 벗어난다. '인생은 1차방정식이 아니다'는 시구는 인생은 물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며, 속된 말로는 '사랑은 밥만 먹고는 못 사는 마음에 크게 의존하는 존재'인 것이다. '물질과 마음'은 '물신이원론' 세계이며 수학적으로는 실수와 허수로 된 복소수의 체계이다.



수학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는 실수만 취급하고 있었으나 발전하면서는 도저히 허수를 수의 세계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수학이 성립할 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4



**"3차방정식 푸는데 복소수 사용하듯**  
**물질세계 문제도 마음 수시로 개입"**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유치한 인간이 미숙한 단계에서 물질(돈)이 인생의 전부로 믿고 지내다가 마음의 세계를 개입시키지 않고는 진정한 인생이 없다고 깨닫게 된 것과도 같다. 즉 16세기 이래 리의 수학자 카르다노는 3차방정식을 푸는데 복소수가 매우 유용함을 알아차렸다. 복소수란 a, b가 실수일 때  $a+bi$ 라는 형식을 갖는 수이다.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3차방정식의 마지막 답이 실수일지라도 푸는

과정에서 일단 복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아낸 것이다. 고대에는 A와 B라는 두 도시 사이를 가는데 걸어가는데 중간에 넓은 바다가 있으면 오갈 수가 없다. 요즘에는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카르다노 이전의 수학자는 방정식만을 푸는데 실수만을 사용했었으나 카르다노는 복소수라는 비행기로 슬쩍 날아간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3차방정식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복소수라는 공중을 통과하여 실수의 해에 당도한 것이다. 위의 그림의 직선은 1차의 실직선인데 같은 직선상의 점에 당도하는데 2차원적인 세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 사실은 곧 물질세계의 문제에도 마음이 수시로 관여함을 의미한다. 중생을 얽던 사람이 마음을 안정시킴으로써 깨워되었다는 실례가 많다. 병은 신체 내의 물질인 세포의 문제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세포의 화학적 작용을 자극하는 것이다. 복소수의 등장으로 비행기 발명에 맞먹을 정도의 중요한 발명이 수학계에 나타난 것이다. 카르다노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목적지에 당도하고 잠이 깨어보니 출발할 때 다름없는 지상이었다고 생각한 것과도 같은 경우라고 할까.

진정 방정식을 푸는데는 수의 세계가 2차원, 즉 평면이어야 된다고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19세기 초기에 활약한 독일의 대수학자 카오스였다. 그는 실수축과 허수축이라는 두 평면을 고안함으로써 모든 복소수를 나타낸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석용산 스님의 마하무드라**  
Rev. Suk Yong San

**진짜나**  
가짜나

석용산 스님

문학수첩

**왜, 침묵했는가?**

일평생 쌓은 모든 것을 다 던져주면서도, 한마디 대응없이 수행에만 몰두한 것은 내 전생의 죄업과 금생의 인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석용산 스님의 마하무드라**  
Rev. Suk Yong San

**진짜나**  
**가짜나**

인도에서 히말라야 설산에 이르기까지 구루들과 숨어 사는 성지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의 고행길에 오른 석용산 스님의 구도록!

수행자가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면 족하다 하였건만, 왜 이렇게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을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밑바닥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나 같이 가슴에 못을 치고 달아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본문중에서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석용산 지음 | 신국판 350면 | 값 8,000원

**문학수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7가 63-1  
TEL: 790-5999(대) FAX: 790-6656